

다저스 'KO' Kang펀치



■ 강정호 규정타석 진입 (NL)

타율	0.293	21위
출루율	0.368	12위
장타율	0.453	25위
OPS	0.821	19위

■ ML 유격수 톱5 순위 (OPS)

1	돌로워츠키	0.293	15홈런	OPS 0.822
2	강정호	0.293	9홈런	OPS 0.821
3	크로포드	0.266	19홈런	OPS 0.820
4	페랄타	0.278	16홈런	OPS 0.781
5	보가즈	0.311	3홈런	OPS 0.744

강정호는 10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의 PNC 파크에서 열린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와의 경기에서 7회말 2사 1·2루에서 바뀐 투수 조엘 페랄타의 시속 145km짜리 초구 직구를 밀어쳐 오른쪽 담장을 넘겼다. /연합뉴스

시즌 9호 홈런... 피츠버그 4연승 이끌어 한 타석 더 채우면 NL 유격수 타율1위

강정호(28·피츠버그 파이리츠)가 시즌 9호 홈런을 통틀어 3점 홈런으로 장식했다.

강정호는 10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의 PNC 파크에서 계속된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와의 홈 3연전 마지막 경기에 5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 7회말 2사 1·2루에서 바뀐 투수 조엘 페랄타의 시속 145km짜리 초구 직구를 밀어쳐 오른쪽 담장을 넘겼다.

지난 2일 신시내티 레즈전 이후 6경기 만에 터진 강정호의 시즌 9호 홈런이다. 또 타점 3개를 추가해 39타점을 쌓았다.

다저스와의 3연전 첫 경기에서 끝내기

득점, 2차전에서 결승 타점을 날리며 이를 연속 팀 승리를 견인했던 강정호는 마지막 3차전에서는 승부의 쉼표를 박는 결정적인 홈런을 날렸다.

강정호는 7회말 타자일순하며 이 이닝에만 두 번째로 타석에 섰다. 강정호는 바뀐 투수의 초구를 놓치지 않고 힘껏 밀어쳐 오른쪽 외야 관중석 상단에 타구를 꽂아넣었다. 3타수 1안타(1홈런) 2사구 3타점 2득점을 기록하고 시즌 타율을 0.293(300타수 88안타)으로 유지했다. 아울러 이날까지 337타석에 들어서 규정 타석에

한 타석 차이로 접근했다. 메이저리그 규정타석은 팀이 치른 경기 수에 3.1을 곱하고 소수점은 반올림한다.

강정호의 활약 속에 피츠버그는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선두 다저스를 13-6으로 제압하고 3연전을 씩씩이했다. 내셔널리그 중부지구 2위 피츠버그(65승 44패)가 4연승의 신바람을 낸 반면 선두인 세인트루이스(71승 40패)가 이날 패하면서 두 팀의 승차는 5게임으로 좁혀졌다.

강정호는 첫 두 타석에서 다저스의 좌완 선발 알렉스 우드를 상대로 고전했다. 2회

말 선두타자로 나서 유격수 땅볼에 그쳤고, 4회말 무사 2루에서 또 한 번 유격수 땅볼로 물러났다.

강정호는 5회말 1사 1루에서 우드의 2구째 몸쪽 공에 엉덩이 부근을 맞아 출루했다. 시즌 14번째 몸에 맞는 공이었다. 팀이 3-5로 끌려가던 7회말 1사에서는 다저스의 세 번째 투수 짐 존슨의 2구째 시속 151km 직구에 왼쪽 옆구리를 맞았다.

강정호의 두 번째 몸에 맞는 공은 팀 타선에 불을 붙이는 계기로 작용했다. 페드로 알바레스의 우전 안타 때 3루까지 진루

한 강정호는 프란시스코 세르벨리의 우전 적시타 때 홈을 밟았다. 피츠버그는 이어진 1사 1·3루에서 닐 워커의 좌익수 희생플라이로 5-5 동점을 만들었다. 이후 안타와 볼넷으로 2사 만루의 기회를 잡은 피츠버그는 스타링 마르테, 앤드루 매커전, 아라미스 라미레스의 3연속 적시타로 4점을 보였다.

타자일순하며 또 한 번 타석을 맞은 강정호는 3점 홈런을 터뜨리고 자신을 두 차례나 맞힌 다저스에 화끈하게 복수를 했다. /연합뉴스

T 타이거즈 전망대

다시 시작되는 5할 싸움이다.

KIA 타이거즈가 주중 안방에서 3위 두산 베어스, 1위 삼성 라이온즈를 만난다. 주말에는 잠실로 이동해 LG 트윈스와 대결을 벌인다. 우선 목표이자 올 시즌 숙명 같은 목표는 '5할'이다. KIA는 SK·한화와의 승부에서 6승을 싹쓸이하면서 간신히 5할에 복귀했다. 그러나 지난주 16연승 뒤 3연패를 남기는 등 2승4패로 적자 살림을 하면서 '2'가 됐다.

◇공격, 분위기를 바꾸는 한방

홈런이 후반기 KIA의 공격 지도를 바꾸고 있다. 4월 한 달 23경기에서 26개의 홈런을 만들어냈던 KIA는 이범호·나지완의 동반 부진 속에 경기당 평균 홈런 수가 5월 0.96개, 6월 0.9개, 7월 0.82개로 감소세를 보였다. 그러나 9일 NC를 상대로 첫 만루포를 쏘아올리며 7호포를 장식한 백용환 등 새로운 전력을 앞세워 8월 8경기에서 12개의 홈런을 쏟아냈다. 이범호가 20개, 필이 15개로 팀홈런 1·2위를 지키고 있는 가운데 나지완의 침묵도 끝나면서 한방이 공격력을 키우고 있다. 두 번째 팀

곰·사자 잡고 5할 복귀 할까 팀 3500홈런 주인공은 누구

3500홈런에 남은 2개. 이번 주 팀의 3500번째 홈런을 날릴 주인공이 탄생한다.

◇수비, 키를 쥔 에반과 집중력 싸움
지난 5일 넥센전에서 전경기 시절을 떠

올리게 한 '뱀지구'를 선보인 김병현이 마운드 스타트를 끊는다. 돌아온 니퍼트와의 대결. 에반이 마운드의 가장 큰 변수다. 불펜에서 '승리요정'이 됐던 에반은 첫 선발 등판에서 가능성과 문제점을 동



에반 릭



김효령

시에 보여줬다. 5회까지 깔끔한 피칭이었지만 6회에는 다른 모습이 됐다. 미국에서도 계투요원으로 주로 활약을 했던 에반에게 선발이라는 옷이 어울리기 위해서는 '이닝'이 필요하다. 상대의 깊어진 분석도 피해야 한다. 에반과 벤치의 선택이 달린 한 주. 수비진의 집중력도 필요하다. 지난주 KIA는 10개 팀 중 가장 많은 8개의 실책을 기록했다.

◇주루, 신종길 스피드·김호령 패기

KIA는 리그에서도 알아주는 '발' 김주찬과 신종길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잦은 부상 속에 김주찬은 6차례 베이스를 훔치는 데 그쳤고, 신종길은 부상 이후 긴 슬럼프를 겪으면서 10개의 도루를 기록하고 있다. 오히려 외국인 선수 필이 13차례 재치를 발휘하며 팀 내 도루 1위다. 김주찬이 햄스트링 부상으로 빠졌지만 신종길이 슬럼프에서 벗어나 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가고 있다는 점이 반갑다. 김호령의 두려움 없는 질주에도 속도가 붙었다. 김호령은 9일 NC전에서 볼넷으로 출루 한 뒤 2·3루 연속 도루에 이어 박찬호의 스윙백트 때 홈까지 파고들며 무서운 스피드를 과시했다. 기복이 심한 타격, 공격을 매섭게 해줄 스피드다. /김어윤기자 wool@kwangju.co.kr

대니 리, 골프 프레지던트컵 출전 순위 진입

인터내셔널팀 랭킹 10위

상승세를 탄 뉴질랜드 교포 골퍼 대니 리(25)가 프레지던트컵 인터내셔널팀 자동 출전권이 걸린 순위 안에 진입했다.

10일 끝난 브리저스톤 인비테이셔널에서 공동 6위에 오른 대니 리는 이날 발표된 세계골프랭킹에서 2.36점을 얻어 지난주보다 9계단 오른 57위에 자리했다. 지난달 미국프로골프투어 그린브라이

어 클래식 우승으로 세계랭킹을 끌어올리기 시작한 대니 리는 프레지던트컵 인터내셔널팀 랭킹에서 10위 자리를 차지했다. 대니 리가 도이체방크 챔피언십이 끝나는 9월 8일까지 프레지던트컵 인터내셔널팀 랭킹 10위 자리를 지키면 오는 10월 인천에서 열리는 프레지던트컵에서 자동 출전권을 확보한다. 반면 안병훈(24)은 세계랭킹 59위(2.35점)로 밀려 인터내셔널팀 순위에서도 12위로 떨어졌다. /연합뉴스

정현, 프로테니스 로저스컵 본선 진출

정현(77위·삼성증권 후원)이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로저스컵(총상금 358만 7천490 달러) 단식 본선에 진출했다.

정현은 9일(현지시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대회 이틀째 단식 예선 결승에서 알레한드로 곤살레스(116위·콜롬비아)를 2-0(6-2 6-1)으로 제압했다. 2013년 대만 챌린저 대회에서 곤살레스에게 당한 0-2 패배를 되갚은 정현은 일반 투어 대회보다 한 등급이 높은 마스터스 1000시리즈인

로저스컵 본선 대진표에 이름을 올렸다. 정현은 이날 서브 에이스 5개를 쏘으며 상대에게 브레이크 포인트를 한 번도 허용하지 않는 일방적인 경기를 펼친 끝에 1시간 만에 승부를 마무리했다.

정현의 본선 1회전 상대는 레오나르도 마이어(35위·아르헨티나)로 정해졌다. 정현은 올해 6월 애건오픈 2회전에서 마이어와 한 차례 만나 0-2(3-6 1-6)로 패했다. /연합뉴스